

#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에 대한 진실

## 목 차

1. 교회의 이름과 정체성
2. 기적에 의한 교회 회복의 역사
3. 몰몬경 원본의 목격자 증언
4. 미국 및 세계적인 교회의 위상
5. 성도들의 헌신 봉사하는 신앙생활
6. 개신교 성직자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관련 내용
  - 1) 이단 연구가 최백용 선생의 경험담 “내가 보고 느낀 몰몬교회”
  - 2) 공재철 목사의 체험담 - 어느 사랑의 몰몬 가족
7. 성경 기준의 이단 판단 근거
  - 1) 거짓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이며 멸망할 자들
  - 2) 성직자, 신자의 부패로 분파를 만들고, 죄를 지으며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
8. 성경 기준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몰몬교)의 이단 여부
9. 일부 개신교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근거와 연유
10. 이단 연구의 정당성과 정죄 행위의 양상
11.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대응과 자세
12. 이단 분류 근거로 삼는 유형별 거짓 증언(주장)들과 그 진실
  - 1)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대속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일부다처를 믿는다는 주장
  - 2) 육체적인 하나님을 믿고 성신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는 주장
  - 3) 아담의 타락 즉, 원죄를 믿지 않으며, 아담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주장
  - 4) 자력구원설을 믿고, 조셉 스미스를 믿어야 하고, 독신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
  - 5) 교회에서 일부다처제를 과거에 시행했었고, 일부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주장
  - 6) 몰몬경은 스폴딩의 미출판 소설 원고를 표절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 7) 선지자를 통한 계시를 믿으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 8) 계시록 22:19을 근거로 몰몬경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
  - 9)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 10)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 11) 사람이 신이 된다(신인동형주의)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는 주장
  - 12) 하나님이 한 때 사람이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는 주장
  - 13) 이 교회를 스스로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 하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13. 결론
14. 참고자료

## 1. 교회의 이름과 정체성

이 종교의 공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이며, 예수께서 계시로 지명하신 이름으로서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교성115:4), 반복하여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몰몬교라는 명칭은 몰몬경을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들에 의해 불러져온 칭호인데, 이는 마치 몰몬이 교회의 머리와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도 아니므로 회원들은 공식 명칭으로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회원들을 지칭할 때는 "몰몬"("더 좋은"이라는 뜻)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가급적 "후기성도" 로 불러야 합니다.

이 교회는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아닌 기독교회이며, 오히려 초기교회와 동일하게 현대에 신권의 권능과 조직이 온전히 회복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 본부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고, 전세계 176개국 1300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미국에는 580만명으로 2007년 미국-캐나다 기독교 연합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톨릭 등 다음으로 네 번째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참고 : 장로교는 310만명 9위)

## 2. 기적에 의한 교회 회복의 역사

이 교회는 1820년 이른 봄 뉴욕주 맨체스터에 살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 조셉 스미스 이세가 14세 때였는데, 당시 그 지역에 서로 자기 교회만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 분쟁이 심하여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야 옳은지 알고자 고민하며 성경을 읽던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 숲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기둥이 내려오고 그 가운데 공중에서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이를 첫 번째 시현이라고 하며 교회 역사는 이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계신 분을 가르치며 "조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며 아들을 증거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조셉 스미스와 대화하였으며, 그 이후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에도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므로 아무데도 가입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1823년 9월 21일 밤에는 침실에서 조셉 스미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밝힌 모로나이 천사가 부활한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나타나 고대 미대륙 원주민들의 종교역사로서 선지자들의 기록인 금판 원본에 대해 알려주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푼 신성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1827년 9월 22일에 구모라 언덕에서 그는 그 기록 금판 원본을 조셉 스미스에게 번역하도록 맡겼으며, 일부 번역과 원고 분실 사건을 겪고 번역이 중단되었다가 1829년 4월 7일부터 학교 교사이던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번역이 이

루어져, 전일 번역된 부분의 말미를 당일 다시 확인하는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약63일 정도 소요되어 번역이 완료되었고, 금판 원본은 다시 그 천사가 회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틴 해리스의 재정 부담으로 1830년 3월 27일 초판 5천부가 출판되었으며, 근래에는 연간 500여만권, 누적 권수 1억2천만권이 보급되기에 이르는 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또한 몰몬경 번역과정에서 침례 성약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1829년 5월 15일 서스케하나 강변에서 기도하였을 때 침례요한이 영광스러운 부활한 몸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여 아론 신권을 부여하여 이 지상에 침례의식을 행할 권능인 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달 말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들에게 나타나 멜기세덱 신권 즉, 영적인 의식을 집행할 대신권을 부여하여 신권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830년 4월 6일에 그때까지 아무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면서 베드로처럼 학문이 없고 세상적 경험도 없는 24세 된 조셉 스미스 이세를 포함한 동료 설립인 6명에 의해 약 60여명이 참석한 첫 모임을 가지면서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고대에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여 예수께서 설립하셨던 초기교회를 그대로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 3. 몰몬경 원본의 목격자 증언

몰몬경의 번역에 관여한 몇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둠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권세로 조셉 스미스가 번역하여 불러주고 서기가 받아 적었으며, 그의 아내 엠마 스미스와 존경받던 농부 마틴 해리스가 참여한 데 이어 올리버 카우드리가 가장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 금판 원본에 대한 소문이 당시 그 지역에서 무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로나이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금판과 몇 가지 소장품을 보여주고 이를 증거하라는 음성을 들었던 올리버 카우드리 등 3명의 증인이 있고, 그 금판을 대낮에 조셉 스미스가 보여주어 만져보고 목격한 크리스찬 휘트머 등 8명이 공식적인 증인으로 나서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후 모두 교회에 가입하였으나 끝까지 충실한 회원으로 남은 사람, 파문되었다가 수년 후에 재입교한 사람, 그리고 파문된 채 비회원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신의 증언을 부인할 기회가 많았으나, 모두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목격한 간증을 엄숙히 증거하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명의 증인 중 한명으로서 파문 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데이비드 휘트머의 경우 노년에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수명의 불한당들이 그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몰몬경 증언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하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앉아서 “나는 그 몰몬경 금판을 분명히 보았소.”라고 준엄히 증언하자 그들이 움츠러 들며 도망치듯 물러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의 간증은 몰몬경 서문에 있으며,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더하면 공식적인 증인

만 12명이고, 그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증인이 다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후13:1)는 증인의 법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참됨을 자증하듯이 물문경도 그 자체가 참됨을 자증하고 있고, 더구나 독자들에게 “이 기록을 받거든 너희는 이 기록이 혹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들어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 라는 약속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영성과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귀중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인 물문경을 그 자체의 약속에 따라 확신하게 되고 감사히 받아들일 것이며, 이를 맹목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4. 미국 및 세계적인 교회의 위상

이 교회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편견과 오해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가톨릭 등 다음으로 네번째로 큰 종교로서 장로교(310만명) 보다도 훨씬 큰 교단(미국에서만 580만명, 전 세계에는 1,300만명, 2007년 기준)으로서 위상을 갖으며, 항상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이 매년 발행되는 미국 기독교 연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신앙의 차이점으로 인해 격심한 핍박을 받아 황무지인 서부 지역으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서부 개척의 주역으로서 성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고, 미국 시사주간지 TIME(1997.8.4)에 보도되었듯이 1950년대 이후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제 물문이즘은 명쾌한 낙관주의와 윤리성에 의해 미국 사회에서 높이 떠받드는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직원 모집 시 가장 우대받는 사람들이 될 만큼 공신력을 쌓아 왔습니다.

정계, 재계, 학계 등에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부상되었던 메사츄세츠주의 미트 롬니 주지사, 부시 행정부의 마이크 리비트 보건사회부 장관, 레이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 교포로는 위싱턴주 상원부의장 신호범 박사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TV발명자, 전화 발명자 그리고 인류 최초로 달을 방문한 닐 암스트롱도 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한국인 최초의 회원은 1951년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공부하던 김호직 박사이며 귀국 후 문교부 차관 등의 공직에 있으면서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처음에는 미군 회원들에 의해 부산의 미군 부대에서부터 예배를 보기 시작하여 교회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활동 중인 저명인사로는 제프리 존스 전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방송인 겸 국제변호사 로버트 할리, 방송인 김미남, 물문경 한글판 초판 번역자 한인상 장로, 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김종열 박사, 삼청운동을 주도하는 유명한 치과의

사인 최육환 박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주덕영 박사, 한국IBM 전무 및 (주)한진정보통신 대표이사를 역임한 고원용 장로(현 필리핀지역 회장단 제1보좌 회장), 사법시험 35회 수석의 대법원기획실 판사 출신으로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권영준 박사와 그의 부친인 권찬태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있고,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 명예교수인 지역 칠십인을 역임한 이용환 장로가 있으며, 현임으로는 지역칠십인 오히근 장로와 배덕수 장로(내과의사, 개업의 원장)가 봉사중이고, 칠십인 제일정원회의 일원인 최윤희 장로가 북아시아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 5. 성도들의 헌신 봉사하는 신앙생활

이 교회는 훈련된 평신도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 성직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임 선교사들까지도 자기 비용 부담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간 귀중한 시간을 바쳐 봉사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자기 직업이 있는 평회원들의 봉사로 운영되므로 재정 운영이나 조직 운영에서 매우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합니다.

회원들의 생활도 매우 윤리적이며, 가정 중심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물문경이 참됨을 간증하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읽어 보고 기도해 볼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겸손하며 온유, 정직, 진실, 순결을 추구하며, 노동윤리를 중시하여 근면하고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친절함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행위 없는 입으로 만의 믿음으로나 행위의 대가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고, 오직 열매 맺는 참된 신앙을 지닐 때, 오로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덕과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야고보서 2:26)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믿습니다.

경험적으로 주시하건데 학업 등을 2년간 중단하고 자기 비용을 들여 기쁘게 봉사하는 젊은 선교사들의 자세와 신앙과 헌신을 유심히 보면 이 세상에 천사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약 7만 여명 되며, 은퇴 후 노년에 봉사하는 경우도 그 중 약 4300여명 정도이고 부름받은 전임선교사 누적 수는 2007년 7월에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임선교사들은 술, 담배, 커피, 흥차, 습관성 의약품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봉사기간 중 TV, 신문, 인터넷, 데이트는 물론이고 이성과는 악수도 멀리할 정도로 절제된 생활로 주님께 대한 충성과 경건을 유지합니다.

선교사들은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자신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건강하여 남성 회원의 경우 비회원보다 10년 이상 장수하며, 각종 사회적인 지표(각종 질병발생률, 범죄발생률, 이혼율, 낙태율, 혼전임신율 등)에서 현저한 건전함을 나타냅니다.

## 6. 개신교 성직자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관련 내용

### 1) 이단 연구가 최백용 선생의 경험담 “내가 보고 느낀 몰몬교회”

“성경연구의 속성과 여호와의 증인 및 몰몬교 오류”라는 제목으로, 도서출판 상지 문화사 (1992.8.10초판, 2004.6.21재판)에서 이단 비판용으로 저술한 부분 중 몰몬교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자가 다녀본 많은 교파들 중에 가장 좋은 인상을 받은 교파가 어느 교파인가 자문해보면 대뜸 몰몬교회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 기성교회도 그들을 본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기성교회가 미치지 못하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몰몬교회당 안에 척 들어서면 대번 느끼는 분위기부터가 아주 친절하고 친밀감을 줍니다. 대개 교회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꾸밈새 없고 생활화된 친절이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분위기화 된 친절을 느낍니다.

여호와의 증인 회관의 분위기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가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즐겁다고 하면서 실상은 공포에 쌓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교는 약 50년의 연륜 차이는 있지만 같은 미국에서 시발한 종교로 둘이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두 종교조직 속에 구성되어 있는 분위기가 감정 또는 생활상태가 너무 대조적이므로 여기서 또 여호와의 증인을 거론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교에서도 사랑과 행복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행복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이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는 등 허울 좋은 그럴듯한 책들도 출판하여 집회 시간에도 가르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정파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혼, 별거, 가출 등 날마다 그 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몰몬교인들의 가정은 정말 단란한 가정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몰몬교인들은 가정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면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 국가도 세계의 평화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정에 낙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들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몬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자기네만 옳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아주 겸손하고 지나칠 정도로 온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덕적인 생활을 합니다.

몰몬교인들은 저 같은 노인들을 존대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도우며 생활이 빈곤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교회의 좋은 점에 대해 체험을 통한 객관적인 인식과 정직한 기술은 존경스러우나, 한편 이 교회를 이단으로 보는 이유로 몰몬경이 솔로몬 스폴딩의 미출판 소설 원고를 바탕으로 썼다는 등의 풍문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된지 오래됨에도 이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고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하셨고(마12:33, 마7:17, 눅6:43)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 :22)라 하였는바 이러한 성경 말씀을 간과하여 열매를 보면서도 그 나무는 오해하는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2) 공재철 목사의 체험담 - 어느 사랑의 물몬 가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치과 위생 사회보, 1997년 가을호에 게재되었던 병원 원목실 공재철 목사의 체험담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1:22)

어느 퇴근하던 오후에 기차 안에서 미국인 한 가족을 보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과 10대의 손자 손녀들 십여명이 이리저리 창밖을 보며 신기해 하고 있었다. 마침 앉을 자리도 없고 멍하니 서서 가기도 심심해서 다가가 설명을 해 주 겠노라며 말을 걸었다. 그들은 창밖의 농촌풍경을 보며 논에는 왜 물이 없으며, 어디서 물을 대는지 궁금해 했는데, 콜로라도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에 온 이유는 아기를 입양하 기 위해서라고 했다.

어디로 가야 좋은 구경을 할지를 모르고 그냥 기차를 탔다는 그들을 문산역을 거쳐 임진 각까지 안내해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물몬교도들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대화하면서 그들의 행복한 가족관계와 신실한 신앙적 삶의 태도 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

금년 여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던 중 콜로라도로 전화를 했다. 매우 반가워하며 그 들은 한국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 왔으며 한 아이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아이라고 걱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매우 고마워했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도 하지 못하는 사랑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편견으로 비판을 하고 정죄 하기까지 한다.

이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사랑하는 일에 앞서 가지 못하면서 남의 신앙을 어찌 비방하라?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미워서 돌로 쳐 죽이 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의 신앙으로 볼 때 예수는 신성모독자였던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은 도저히 신앙인이라고 봐 줄 수 없는 행동이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크게 깨달았다.

"신앙이란 단순히 믿음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 대한 자세와 그 방식을 말 하는 것이다." (Faith is a life-style and existential attitude not merely a belief system. Brister C.W.-)

## 7. 성경 기준의 이단 판단 근거

'물몬교는 이단'이라는 주장이 교회 밖에서 제기되곤 하나 이는 편견과 오해이거나 또는 악의적인 비방일 뿐, 성경 기준으로 보면 이단일 수 없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단이라는 용어가 다섯 군데 나오는데(행 24:5, 행 24:14, 갈 5:20, 딤후 3:10,11, 베후 2:1), 첫째로는 "분리된 종파"라는 뜻이며, 둘째로는 "멸망할 이단"이라는 뜻인데, 둘째 의미로 이 내용을 설명한 구절은 실질적으로 디도서 3장10,11절에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는 사람"을 이단자라 하며, 그들의 행위는 베드로 후서 2장1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로서 "호색"하며, "신자를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이단"이란 범죄의 하나(갈5:20)로서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베후 2:1)이고, 윤리적으로는 부패한 범죄 행위자를 뜻 합니다. 현재에 개신교계의 '이단' 용어가 이 두 가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결국은 '구원이 없는 멸망할 적그리스도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부당한 적용을 살펴보기 위해 성경의 이단판별 기준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으면 이단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아닙니다.

### 1) 거짓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이며 멸망할 자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희생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영과 육으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후 승천하신 구세주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빛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창조주라는 사실과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심판자와 통치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이를 교묘히 부인하거나 왜곡하는가?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종교라면 이들이 바로 구원의 희망이 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또한 당해 종교의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실이나 위임받은 권능이 없으면서, 근거 없이 부름 받은 자임을 자처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교묘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인하거나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거나, 호색하거나 교인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위해 성경을 사실과 달리 거짓되게 왜곡하여 가르치는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유일한 이단의 행태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단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2) 성직자, 신자의 부패로 분파를 만들고, 죄를 지으며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

교회나 복음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회나 복음을 돈으로 사고파는가? 또는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이득을 목적으로 교회 활동하는가? 교인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가?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성령 거스리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기, 분쟁, 시기, 분냄, 파당, 분열, 술취함, 방탕함, 불친절, 위선, 교만, 돈을 사랑함, 기타 과도한 헌금과 교회 충성 요구로 가정파탄 초래 등등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거나 방치되고 있는가?

죄로 인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가? 입으로는 믿음이나 구원을 말

하나 행위로는 회개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지니는가?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방치된다면 이들도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단은 어디까지나 당해 교단 내부에 스며들거나 또는 그 교단에서 분리된 파생교단 내에서 잉태되어 자라는가의 문제이므로, 이단 연구와 대처는 이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부의 대응 과제는 외면하고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는 건전한 종교이거나, 자기 교단과는 설립 때부터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서 독립 주체인 타 교단에 대해 이단 시비하는 것은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 벗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이단 판단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곤 하였으나, 이러한 성경 기준 이외의 기준은 독선과 편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경 이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고만 해야 옳으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종파간의 차이점, 즉, 예정설(장로교)과 만인구원설(감리교 등), 세례의식(장로교 등)과 침례의식(침례교 등), 유아세례 시행(장로교 등) 유아침례 시행 않음(침례교)이나 여목사 제도 인정(장로교 등) 여부 등의 교리나 제도상의 상당한 차이점은 종파간의 성경 이해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으로 인정하여 이단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차이점은 특정 교단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비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특정한 교리나 신조나 전통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타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멸망할 대상'이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이며 기만행위라 할 것입니다.

### **3) 교단의 교리와 신조로 이단 판단의 부당성**

국내의 개신교계에서는 정서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교단에 대해서는 그 종교 본질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거의 맹목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까지 동원하여 타 교단을 '멸망할 이단'으로 규정하여 가혹하게 배척하여 왔습니다.

특히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며, 한편으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기준이 아닌, 성경과 다르거나 성경에는 없는 자기 교단의 교리나 신조나 전통을 내세워 '멸망할 이단'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기 교단의 전통과 신조를 기준한 이단이란 '자기 교단과 동일하지 않은 교파'를 의미하는 것일 뿐, 성경 기준의 '멸망할 이단'이 아님을 전제조건으로 밝혀야 함에도, 앞에서는 다른 종파라는 의미로 이단으로 구분하고, 뒤에서는 멸망할 이단이라고 모호하게 매도하는 위험성이 초래되며 이를 방치하면 결국 자기기만의 가해행위이고 범죄행위가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모든 기독교인이 믿는 성경의 영감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성경 전래과정의 완전성, 충족성, 완결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바른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경과 다르거나 없는 내용의 신조나 전통을 의존한다는 것은 성경 아닌 것으로 성경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의 충족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심각한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부족하여 성경에도 없는 신조나 교리를 빌려 이웃을 멸망할 이단이라고 심판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주님의 고유한 지위인 심판자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으로서 이는 위험한 범죄 행위로서 성경에 어긋납니다.

## 8. 성경 기준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몰몬교)의 이단 여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그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의논하여 기존 교회에서 반기를 들고 분리되어 나와 새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므로 종파적인 의미에서도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초대 회장이요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를 포함한 설립인 6명은 교회가 회복되어 창립되기 전에 어느 교단에도 소속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거룩한 시현과 천사들의 방문 그리고 몰몬경의 출현과정을 보더라도 기적의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기성도들은 성경에 따른 교회의 가르침대로 기꺼이 충실하게 생활하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스스로 정죄하지 아니하며, 죄를 멀리하는 순결한 생활을 추구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은 십자가 형틀 형상이나 성호이기 보다는 술, 담배 및 외도를 금하고, 친절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신앙생활 태도로 나타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음을 믿으나, 입으로만 믿는 위선이 아닌 진실한 믿음과 행위가 따르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성 삼위 가운데 아들 하나님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의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단일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요일4:2)라는 성경 가르침에 부합되어 후기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므로 이를 보더라도 이 교회는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 9. 일부 개신교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근거와 연유

그럼 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의도적인 거짓증언이나 왜곡에 기인된다고 이해됩니다. 그것은 주로 외국의 몰몬교 비판서적의 원저자들로서 돈을 위해 이 교회에 대해 있지도 않는 사실을 거짓 증언하거나 왜곡하여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책자를 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남의 초상화를 몰래 가져다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덧칠하고 뿔까지 그려 넣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보라 몰몬은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나 실은 악마로다.” 라고 선전하며 “유혹에 빠지지 말라”며 경고하는 식의 부도덕한 양상입니다.

또한 그 책 출판의 근본 목적은 독자들의 기대심리에 영합하여 돈을 벌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은 사실을 알면서도 “태양은 흑점이 있으니 검은색이다.” 라고 왜곡 주장하거나 또는 해를 바라보면서도 “저것은 태양이 아니다.” 라고 거짓 주장하는 식이므로 이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스스로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포되는 비판 자료들이 거짓 증언인 사실은 “무례한 기독교” 등의 저서로 저명한 신학자인 풀러 신학대학교 리처드 제이 마우 총장이 그러한 책들의 대표적인 유명한 저술가들인 월터 마틴, 데이브 헌터 등이 거짓 증언하고 있다고 공개 지적인 바 있고 대신 사과도 하였던 바 있으므로(크리스천 투데이 2004.12. 16 보도) 이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ttp://www.chtoday.co.kr/view.htm?code=mw&id=142222> 보도기사 참조)

둘째로 객관적인 정보의 결여입니다. 아쉽게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국내 일부 이단 연구자를 자임하는 소수의 개신교 교직자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연구할 여력이 없다고 함) 그러한 책자를 잘못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인용된 자료를 사실인 줄로 오해한 국내 일부 개신교인들은 맹목적으로 재활용하여 인쇄물이나 인터넷에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좋아해서라 하기 보다는 무지의 소치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 어느 교단의 주일학교 교재에는 아직도 “물몬교는 일부다처제 교회”라고 거짓된 설명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몇몇 교단에서는 이러한 허위의 글을 제시한 이단연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부주의한 점은 있더라도 양심을 속이는 분들은 아니라고 믿어지므로 정확한 정보만 제공되면 바르게 판단하고 시정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정보는 이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위해 교회를 비판하는 거짓증언자와 배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대한 이러한 허위와 왜곡의 거짓 증언에 의해 조성된 오해와 편견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10. 이단 연구의 정당성과 정죄 행위의 양상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태어났으며, 그에 따라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멀리할 수도 있으며, 선이거나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한다면 그 선택한 종교도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편 자기 종교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죄와 악이 교회 내에 싹트지 못하도록 막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단 연구와 비판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적으로도 종교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정당하게 선과 악을 가리어 적그리스도와 부패한 범법자가 누구이며 어떤 형태인지 구분하여 비판한다면 그러

한 비판은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거짓증언과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비방하며, 선을 악이라 할 경우 스스로 더 큰 죄와 위험이 됩니다.

그것은 종교 비판의 자유가 아닌 명예훼손 등의 위법 부당한 범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하늘에 죄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비판을 만류한 가말리엘(행5:34~40, 22:3)의 신중함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따금 비방자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해석 해 놓고 그 자의적 기준에 안 맞으니 이단이라고 주관적으로 정죄하는 경우 그들의 "이단"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악한 사람들이나 집단 또는 적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무모하게 사용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렇게 정죄함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요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며, 사랑은 친절이며 동정심과 자비이며 예의가 그 바탕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을 뿌리고 있는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의 면전에다 대고 "그대는 내 취향이 아니니 천벌 받고 지옥에 떨어질 이단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위험한 이단이니 상종하지 마시오" 하고 경계하는 식이라면 그것은 사랑이나, 기본 예의나 상식에서 멀어진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임을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옳고 그른 것은 "예" 또는 "아니오"(마5:37) 라고 분별하여 말하고, 어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또는 "차이점이 있다" 라고만 말해야 하며, 자기 교단과 무관한 다른 종교인더러 "그들은 멸망할 이단이라"고 내외적으로 험담하거나 공표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12절에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마5:22, 롬14:10, 요5:22 참조) 라며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며 도무지 사람이 단죄해서는 안 될 일임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엄한 계명입니다.(마7:1-5)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설립 때부터 어느 종파에서 분리되어 파생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교회로 설립되고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보더라도 이 교회를 정죄할 수 있는 권능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11.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대응과 자세

이 교회는 교리는 매우 간명하고 단순하여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으며 깊이를 추구하는 이에게는 한없는 이해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경과 온전히 일치되고 있으며, 모순이 없고 위로나 아래로나,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음

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신앙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할 뿐 다른 종교나 종파를 비판할 시간이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후기성도들은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여 비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후기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로 믿으므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로 인식하여 누구든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후기성도들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웨슬레 같은 훌륭한 분들과 테레사 수녀와 같은 선한 분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이 주님의 자비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포함한 타 종교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양심에 따라 선하게 생활한 사람들이라면 구세주의 자비에 의해 그들이 소망하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개신교 교직자들에게 테레사 수녀나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신 우리들의 조상(베후 4:6)들이나 어려서 죽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느냐고 물어보면, 테레사 수녀는 이단(가톨릭)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즉, 지옥에 떨어진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식의 편협된 신앙을 후기성도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관용적이면서도 탁월하고 소중한 가치관과 무한한 이상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영원히 나아가야 할 그리고 구원받게 될 너무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후기성도들은 인류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타 종교인에 대해 진실한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는 것이며, 교회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착한 사람을 더욱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12. 이단 분류 근거로 삼는 유형별 거짓 증언(주장)들과 그 진실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대표적인 왜곡과 거짓 증언 주장들과 실제적 사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승인된 공식교리는 4대 경전에 근거하는데, 바로 성경,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진주이며, 이는 처음부터 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 4대 경전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므로 이로써 진실이 해명될 것입니다.

### 1) 예수의 신성과 대속을 부인하고, 예수의 일부다처를 믿는다는 주장

<사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조주로서 존재하였으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 희생을 치루셨고, 장사한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이요,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신

성과 대속을 전적으로 믿으며, 이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 4대 경전(구약:사41:13, 신약: 마20:28, 물몬경:모사 15:6~9, 18~27, 교성 49:5, 값진진주 신앙개조:1,3)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세주임을 가르치고 믿습니다.(니후 31:21, 모세서 6:52, 행 4:12)

주일학교 교재이기도 한 성경 등 4대 경전에서도 예수님의 결혼에 대해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회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여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였고, 온전하게 결혼한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점이나, 부활 후 사도들 보다 먼저 대면한 마리아가 보여준 주님에 대한 친밀성 등을 미루어 유추하거나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해의 영역일 뿐이며,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개인적인 주장에 주의를 준 바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교리로 받아들여 인정한 바 없으며, 불경의 우려로 인해 거론하는 것 마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육체적인 하나님을 믿고 성신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는 주장

<사실> 육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개신교의 믿음과의 차이점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과 같이 형체를 즉, 영광스런 부활의 몸체를 지니신 분임을 믿으며, 이는 성경에서 증명하는 바(눅 24:39) 부활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연계의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육체를 지니심을 믿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즉, 아들 하나님은 부활체인 신성한 육체가 있다는 성경의 증언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육체가 없다고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히1:3)이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형상이 동일하다고 믿는 믿음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인 영적인 측면을 대표하여 지칭한 것이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부활체가 아닌 영의 상태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느낌을 주시는 분으로 인격을 지니셨으며, 인류 구원을 위한 뜻과 영광에서 하나이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최고 권능의 통치자이시며, 성령을 통하여 모든 곳에 거하실 수 있으므로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 3) 아담의 타락 즉, 원죄를 믿지 않으며, 아담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주장

<사실> 이른바 아담의 원죄를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가 죄와 시험의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는 구원이나 완전에 이를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 인류에게 미치는 아담의 범법이 대속되었으므로, 아담의 범법에 기인하여 사람이 형벌받지 아니하며,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부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지 자유의지로서 범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형벌 받게 됨을 믿습니

다.(창 3, 고전 15:22, 열마 34:9, 교성 84:16, 모세 4) 따라서 죄 없이 순수하고 회개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나 정신박약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의 품안에 있으므로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회개와 중생을 상징하는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다.(모로 8장) 따라서 교회에서 아담의 타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또한 아담은 흠으로 빚어진 육체를 입은 최초의 사람이고 우리 인류의 조상일 뿐, 4대 경전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주일학교 복음교리반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나 믿는 후기성도는 없습니다.

#### **4) 자력구원설을 믿고, 조셉 스미스를 믿어야 구원받으며, 독신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

<사실> 교회는 자력구원설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 받는 것은 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되 전적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공덕과 자비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거나 스스로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물론경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 함. 니후 2:4)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음'(롬5:1)과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살아있는 믿음'(야고보서 2:14~26)이라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 주어진다'(롬6:22)는 가르침을 믿으므로 그에 따라 믿음과 행위를 다 같이 중시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후기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가령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하는 가르침은 성경의 반쪽 가르침이며, 실제로는 열매를 맺기 어렵게 하는 왜곡된 가르침에 해당됩니다. 믿음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후기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이상,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므로 이단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는 위대한 성역을 수행한 모세와 같은 한 현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음을 믿으며, 그의 후계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도로서 종ियो 도구였을 뿐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4대 경전에도 없는 주장입니다. 교회 안에 독신자도 대단히 많으며, 그들의 의로운 신앙과 소망에 따라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성전 결혼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 **5) 교회에서 일부다처제를 과거에 시행했었고, 일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주장**

<사실> 교회에서는 유타에 정착한 후 1853년부터 1890년까지 계시에 따라 일부다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 선지자 모세 등이 일부다처를 하였고 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제한적으로 승인되었던 결혼 제도입니다. 과거에 그런 제도를 시행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죄한다면 신앙의 조상이나 성경을 정죄하고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1884년도에 미국의회에 일부다처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있어서 연방정부와 교회 간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이를 합법으로 인정하게 되자, 교회에서는 국법을 지키라는 교리(교성:134편,신앙개조제12조)와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교리(교성:132편)가 서로 상충하게 되었으므로 다시금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결과 일부다처를 전면 폐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되었습니다.(1890.10.6 솔트레이크 시티)

교회에서는 역원의 부름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만장일치의 승인으로 집행되는 교리와 관행이 있는바, 어느 때건 이에 반대하고 떨어져 나간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교회에는 분파나 근본주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성도가 중혼이나 합법적인 혼외의 성관계를 가지면 교회의 순수성 보호와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해 즉시 회원자격 정지나 파문되고, 특히 그가 지도자이거나 위법한 중혼자나 이의 옹호자이면 즉각 파문됩니다.

현재 미국 서부의 주 접경지역에 은둔 생활하는 불법적 일부다처 종파들(FLDS 등)이 종종 보도되고 있으나, 그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독립적인 자생 단체일 뿐 이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 가입했던 적도 없었고, 물문경과 무관하므로 스스로 물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으며, 설령 물문 분파임을 자처하더라도 이는 사칭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도과정에서 그들을 물문의 일부인 듯이 "물문 분파" 또는 "물문 일파"라고 표시했던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통신사 뉴시스, 연합뉴스 및 스포츠 서울, 크리스천 투데이 등 국내 신문사나 MBC 스페셜 등에서 사과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한 바 있습니다.

(참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dspecial/note/1524487\\_15990.html](http://www.imbc.com/broad/tv/culture/dspecial/note/1524487_15990.html))

이러한 오보 사고 역시 거짓 증거와 왜곡을 일삼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영향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6) 물문경은 스펀딩의 미출판 소설 원고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 1) 교회 초기에 물문경이 솔로몬 스펀딩이라는 성직자의 미출판 공상소설 원고를 표절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 풍문이 나돌았으나, 수십년 후에 오하이오주 오버린 대학교의 제임스 에이치 페어차일드 총장과 박물관 일을 하는 그의 친구 라이스씨가 우연히 그 원고를 발견하여 소문을 확인하고자 면밀히 대조해본 결과 물문경과 사상, 내용, 형태, 분량 등이 전혀 다르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이를 1885.2.5일자 뉴욕 옵저버지에 공표한바 있습니다.(교회연합신보 1983.1.2일자 게재)

2) 그리고 물문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내세우나, 사실은 물문경에 기록된 고대 문명에 대한 유물로서 미시간 인디언 묘지에서 출토된 고대 에굽어의 문자와 그림이 새겨진 점토와 동판 등이 속속 발견되어 왔으며, 마야문명, 잉카문명을 이룬 백성들의 후예들인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전설에서 하늘의 하얀 하나님, 노아의 홍수 등이 성경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전래되고 있음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3) 또한 물문경의 금판 원본은 없어서 버렸고, 물문경은 4천번 이상 고쳤다는 주장이 있

으나, 이 역시 물문경의 원본 금판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고쳤다는 것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번역하도록 한 금판 인계자가 고대 최종 기록자이면서 기록 보관자였던 부활한 모로나이 천사였으며, 번역이 끝나자 그가 다시 회수하여 하늘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직접 받아서 보고 이를 증거 하라는 말씀을 들은 3명의 목격자가 있고, 대낮에 번역자 조셉 스미스로부터 그것을 받아 보고 만져본 8명의 증인이 증언하였으며,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공식 증언하였는바, 그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물문경은 진실하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문경은 초판이 현재까지 201권이 보존되고 있으므로 지금도 대조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구두점이나 장과 절 그리고 요약과 색인이 없었으나, 판을 거듭하면서 독자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쳤다고 한다면 성경은 몇 십만 번 또는 셀 수도 없이 여러 번 고친 것이 되므로 이 역시 당치 않는 허위 주장입니다.

4) 물문경을 믿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교회에서는 신, 구약 성경을 제일 경전으로 믿으며(신앙개조 제8조), 물문경을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과 물문경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인 셈인 물문경이 있으므로 성경을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믿는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허위 주장입니다.

#### **7) 선지자를 통한 계시를 믿으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는 12사도가 총원되었고(가롯 유다 대신에 맛디아가 성임됨 행1:12~26), 박해로 인한 사도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12사도들은 계속 총원되어 지상에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변경이 있을 때는 수석 사도가 선지자의 지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도록 변경될 때 베드로는 하늘에서 바구니에 여러 짐승이 담겨져 내려오는 시현을 보았고 이를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행10:1~46) 이렇게 계시가 있다 함은 교회가 영적으로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성경은 선지자가 교회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모스서 4:6 “여호와는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행함이 없느니라.”

#### **8) 계시록 22:19을 근거로 물문경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

<사실> 계시록 22:19,20 “...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라는 구절의 “이것들”이라 함은 이 두루마리 즉, 요한 계시록 같은 절 및 1장3절에 언급한 “이 말씀”을 곧 요한계시록 자체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계시록이 쓰여 질 당시 신약성경 27권이 성경으로서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

니다. 더구나 요한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경전도 아님을 보더라도 신구약 전체를 지칭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 95년경 이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비슷한 시기이지만 가장 나중에 쓰여진 기록은 요한서와 요한복음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당시 존재하거나 구성되지 않았던 신구약 66권을 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내용 자체를 지칭하여 변경시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은 신명기 4:2, 12:32 등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성경을 구성하는 전체 권수로 본다면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세5경 이외의 이사야서 등이나 신약성경은 더하여지지 말아야 할 책들이 되어 성경을 부정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초래합니다.

성경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신약시대 때 날권의 두루마리 형태로 각처에서 개별적으로 별도 산재해 왔고, 하나로 모아진 서기 400년경 이후에도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 필사본으로 번역되고 전해내려 왔던 것입니다. 원래 영감에 의해 쓰여진 거룩한 경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내려 오면서 수없이 거듭하여 옮겨 적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누락이나 오기가 있었음은 킹 제임스 판 성경과 다른 성경들이 구절에 따라 없어지거나 달라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충족설과 무오성이 무리한 가설인 사실은 킹 제임스 판 한글성경을 번역 보급하고 있는 말씀보존학회에서 다른 성경은 70,000개소나 번역,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그래서 그런 성경은 사탄의 책이라고 까지 주장합니다. 그런 모순이 엄연히 현실로 존재함에도 이에 눈을 가린 채 거짓말 하는 셈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성경 왜곡의 역사, 청림출판사, 바트 어만, 채플 힐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종교학부 학장 저, 2006.5.16 참조)

교회에서는 그 중에서도 영어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판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비교적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마저 결함이 있는 부분은 조셉 스미스의 영감역을 참조합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이나 계시를 배제하기 위해 성경 무오설과 충족성과 완결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논리나 이치에도 맞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주님의 계시가 종결되어 또 다른 추가되는 말씀은 필요 없다거나, 구약 39권에서 다른 경전 즉, 신약의 분량을 제한하거나 규정한 바 없듯이, 신약 27권에서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에스겔서 37:16~19에 유대인들의 기록인 성경과 더불어 야곱에 의해 다른 지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던(창48:19) 요셉의 후손들의 기록인 몰몬경이 하나로 될 것임을 예고하여 왔습니다.

### 9)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사실> 삼위일체는 세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한 몸이라는 말로서 정통 초기교회 이후에 계시와 신권이 지상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토틀리안이 당초에 개인적인 이해력으로 고안한 신학 이론입니다. 이를 그 후에 교부들이 옳다거나 그르다며 약50년간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투표로 다수결에 의해 교리로 채택하게 된 하나의 학설입니다. 참된 교회의 진리란 사실과 계시가 동반된 지식이며, 다수결로 본질이 변경되거나 학설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3:13~17에 증거 하기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증거 하여 말씀하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며, 하늘에서 하강하여 임재 한 성령 자신도 아니라, 바로 개체적인 아들로써 존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또한 이 장면은 권능 있는 자에 의한 침수로서 침례가 필수적임을 보여 줍니다.)

또한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행 7:55) 만약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으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하여 볼 수 없으며, 우편 좌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한 몸이라면 스스로에게 기도하였다는 것이므로 모순입니다.(요한17:1~26) 이를 보더라도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은 인류 구원사업의 목적과 사랑과 영광에서 하나이지만 일체라 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란 비성경적인 모호한 교리인데, 과거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자 격으로 존경받던 장로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께서는 하나님은 하나이나 때에 따라 아버지로, 아들로, 성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양태론을 믿고 설교하였으며, 그 당시 개신교계에서 다 그렇게 믿었으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고대 교회의 역사 자료 발굴에 의해 삼위가 개체로 존재하면서 뜻에서 하나라는 점과 아들과 성신은 아버지께 종속되어 있다는 종속주의론을 더 많이 주장하는 추세이고 심지어는 양태론을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설을 내세워 개체로서 한 하나님이신 성삼위를 가르치는 이 교회를 이단시 한다면 그 비판 기준에 의해 과거 개신교가 전부 이단이었던 점을 시인하는 셈인데, 이는 자기 교단이 역사적으로 이단인 주체로서 타종교의 이단여부를 논하는 것 역시 모순입니다.

성경은 성삼위가 개체임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후기성도들은 성경대로 믿고 있으며, 또한 이는 1820년 봄 조셉 스미스 이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과 대화했던 첫 번째 시현을 통해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들어난 진리입니다.

이 성삼위 개체의 사실은 이론이나 학설이 아닌 진실이며, 더구나 종속주의 견해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혹여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개신교 안에서의 과거와 현재간의 차이보다 더 적을 뿐 아니라, 성경에 일치하는 교리이므로 성경에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인간이 만든 하나의 설을 기준으로 하며, 옳은 것을 이단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부당한 것입니다.

## 10)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사실> 이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예배순서가 없으나, 후기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권세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많은 병고침과 이적과 위대한 가르침을 베푸셨으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에 의해 모욕당하시고 빌라도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돌아가신지 3일 만에 영과 육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신 후에(물문경에는 이 때 예수께서 미 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역을 베푸신 기록이 있음)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었으며, 물문경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 이세는 현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물문경 등 경전 가르침이며 후기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신경은 후세에 교부들이 정리한 내용일 뿐 영감받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며, 성경에는 이런 고백서를 암송하라는 가르침이 없는바, 예배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과 이 사도신경(신조)는 근본적인 맥락에서 배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판하는 분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으며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 11) 사람이 신이 된다(신인동형주의)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는 주장

<사실> 영생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며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닭이 되고 송아지는 황소가 될 것이며, 어린 아들은 장차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히12:9, 롬8:16,17, 마5:48) 삼위 일체의 교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다고 오랫동안 애매한 개념을 지녀온 개신교인의 입장에서라면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하셨습니다.(요10:34,35)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고전6:3)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자가 천사를 판단할 정도로 천사보다 우위의 존재로서 신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젠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동등해지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의 가르침으로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위대한 하나의 이상입니다. 물론 회복된 복음은 계시로 인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개신교에서 관련 성경 구절의 가르침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방법의 차이일 뿐이므로 비방의 대상으로 할 사항은 못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러한 성경 지식이나 성도가 바라는 이상은 구원의 의식을 받는데 꼭 필요한 조건, 즉, 침례나 성전 추천을 받는 조건이 아니며, 지도자나 교사로 부름 받는 조건도 아닙니다.

이렇듯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소망과 이상을 가진 데 대해, 이해 부족하거나 견해가 다른 입장에서 이단 운운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셈이므로 부당합니다.

## **12) 하나님이 한 때 사람이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는 주장**

<사실> 교리란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원리와 행해야 하는 의식이 포함됩니다. 후기성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이고, 영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던 존재이며,(히12:9, 욥기 38:4~7) 그 영의 본체는 예지이며 영원한 존재라는 진리를 계시(교성 88:15, 모세 3:7)를 통해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후기성도들에게 많은 지식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때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시된 바 없으며,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재로 사용되는 4대 표준 경전에는 없는 내용이며, 교회의 총회에서 승인 받은 공식 교리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존재로서 영화로운 승영에 이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어느 지도자의 이행시가 있었으며, 후기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 이행시를 참고하고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그 내용이 우리의 구원 의식에 꼭 필요한 교회의 필수적인 교리나 복음 원리나 지식에 해당되기 보다는 이해의 영역이 될 것이므로 이를 논란거리로 여겨 문제 삼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후기성도들은 실제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으로 가까이서 존재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닮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실체적 형상으로 실존하는 살아계신 영의 아버지로 인식하므로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 교리가 아닌 것을 교리라고 주장하며 비방하는 것은 왜곡이며 기만행위가 됩니다.

## **13) 이 교회를 스스로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 하므로 이단이라는 주장**

<사실> 어느 종교든 자신이 속한 교회를 참된 종교라고 믿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믿고 있는 경전에서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언급된 주님의 말씀(교성1:30)을 살아계신 구세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때때로 신앙이나 느낌이나 확신에 따라 이 교회는 회복된 참된 교회임을 간증하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할 뿐, 자의로서 독선적인 주장을 하거나 유일한 교회임을 내세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이단으로 비방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이 경전 구절을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됩니다. 참된 교회라고 믿는 것 자체를 두고 이단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마치 개신교에서나 가톨릭에서 스스로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신앙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하거나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모르되, “(멸망할)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기준이나 복음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렇듯이 교회를 비방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하나 같이 거짓 증언이나 왜곡된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는 거짓증언자나 배도자는 회개하거나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나, 모르고 인용하는 이들은 이들 악한 자들과 결별하여 구원을 향한 자신의 길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 13. 결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공식 교리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 받은 성경, 물문경, 교리와성약, 값진진주 이 4대 경전에 근거합니다.

교회 회원 중에 어느 개인이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이해의 영역은 될 수 있을지라도 총회에서 공식 승인된 공식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교리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4대 경전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후기성도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법을 근거하여야 합니다.

진실은 진리의 존재 바탕이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포함되면 진실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거짓을 책자나 인터넷으로 유포시키며 무고히 “이단”으로 정죄하여 갈등을 조장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아니며,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현행법을 어기는 가해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늘에 죄를 쌓는 일이 되는바 이제 이 땅에서 근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후기성도들은 스스로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기를 소망하고, 이 교회가 무한한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진실로 회복된 주님의 교회라고 믿고 있으므로, 기회가 되면 참된 복음이 주는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있으며 참된 것을 알아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에 속한 이 이든지 그들 이웃의 의사와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이 복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설령 이웃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온전해지기에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으므로 다른 종교를 이단 운운하며 비방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종교 간에 우호와 선의로서 평화롭게 지내고 선한 가치를 위해 서로 격려하며 돕는 활동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대해 ‘이단’이라는 등으로 정죄하거나 폄훼하는 처사는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관계자분들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 14. 참고자료

추가로 알아보시려면 아래 홈페이지의 참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식 홈페이지 : [www.lds.or.kr](http://www.lds.or.kr) ; 한국어 공식홈페이지

: [www.ldschurch.org](http://www.ldschurch.org) ; 영어 공식홈페이지

: [www.mormon.org](http://www.mormon.org) ; 비회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인 박복주 홈페이지 : [www.ldskorea.net](http://www.ldskorea.net) "그리스도의 복음", "표준경전" 등 자료 참조